

##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나은영 · 김혜숙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전국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의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것과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의 가족구조는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이 주종을 이루며, 여전히 처가(친정)보다는 친가(시댁)의 방문 횟수가 많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관계에 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족관계 만족도가 친인척관계 만족도보다 삶의 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20대는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미래의 낙관적 기대가 낮았으며, 30대 이후는 동거가족이 많을수록 가족만족도 또는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대도시에서 읍·면으로 갈수록 부모와 형제자매를 더 자주 만나며 가족·친인척관계 만족도도 증가했다. 중소도시와 읍·면에서는 명절을 대도시보다 더 중요시하며, 대도시는 결혼식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편이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커지는 반면 친인척관계 만족도는 대체로 작아져, 학력이 높을수록 넓은 친인척관계보다는 핵가족 안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 하는 성향을 시사했다. 결혼 후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친인척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미혼인 사람이 중간정도였으며, 별거나 이혼을 경험했거나 경험중인 사람들은 만족도와 낙관적 기대가 모두 낮았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가족공동생활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삶의 질과 공동생활의 문제를 결부시켜 논의할 때 다른 어느 공동생활보다도 가족공동생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위로를 받으며 또 다른 사회생활의 활력을 얻

게 되기 때문이다. 가족을 다른 이익집단들과는 대조적으로 1차집단으로 분류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비경쟁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핵가족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표 1 참조). 더 나아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 쪽이 없는 결혼가정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족공동생활의 해체 추세가 삶의 질과 어떤 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가족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 내지는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질의 변화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

\* 본 연구는 교육부 지원 인문사회과학 중점영역 연구과제 “삶의 질: 공동생활”(1995. 7.-1998. 6.)의 일부로서, 첫 저자가 담당했던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부분의 1차년도 조사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본 논문의 초안을 읽고 꼼꼼하게 도움 말씀을 주신 사회문제연구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표 1. 한국 가구 구성형태의 역사적 변동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세대 가족형 가구	5.4	5.5	5.8	6.5	8.3	9.6	10.7	(증가)
부부만으로 구성		4.5	4.4	4.8	6.0	7.1	8.3	
부부+형제자매		0.3	1.3	1.7	2.3	2.5	2.4	
기타		0.8						
2세대 가족형 가구	64.0	66.1	70.0	68.9	68.5	67.0	66.3	
부부+자녀		52.9	55.5	53.2	53.0	52.8	51.9	
부부+자녀+형제자매		2.0	2.0	2.1	2.3	2.3	1.7	
편부+자녀		0.7	10.6	9.7	9.3	8.9	7.8	
편모+자녀		7.2						
부부+부모		0.6	0.6	0.1	0.1	0.2	0.2	
부부+편부모		0.8	0.8	0.4	0.4	0.5	0.6	
기타		1.9	0.6	3.4	3.3	2.3	4.0	
3세대 가족형 가구	26.9	23.5	22.1	19.2	16.5	14.4	12.2	
부부+자녀+부모		6.7	5.1	2.0	1.9	1.9	1.7	
부부+편부모		12.3	12.3	8.5	7.9	7.2	6.7	
기타		4.1	4.7	8.8	6.7	5.4	3.8	
4세대 가족형 가구	1.6	*	1.1	0.9	0.5	0.4	0.3	
비혈연 가구	2.1	2.6	1.0	1.2	1.5	1.7	1.5	
단독 가구	△	2.3	△	1.2	4.8	6.9	9.0	

\* 3세대형 가구에 가산되었음. △ 1세대형 가구에 가산되었음.

출처: 장현섭 (1993), p. 50. [원전: 센서스 1960-1990.]

동생활과 삶의 질 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부유해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있고(Hofstede, 1991; 차재호·나은영 역, 1995 참조), 개인주의적이 될수록 가족공동생활의 해체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함인회, 1995 참조), 가족공동생활의 해체는 삶의 질 향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공동생활의 해체로 인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면서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져 가는 방향으로 인과 관계를 보는 것이 옳을 것인가. 또는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져도 젊은 층의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많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생활의 현황과 그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기초 조사자료가 필요

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먼저 우리나라의 가족공동생활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기존 연구들의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여 살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 현황과 그에 대한 만족도 및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조사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 가족공동생활의 현황과 변천과정

먼저 장현섭(1993)이 정리해 본 한국 가구 구성형태의 역사적 변동 과정이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을 보면,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3세대 가족형 가구의 현저한 감소이다. 즉, 부모나 편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핵가족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1세대 가족형 가구도 비록 소수

이지만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자식이 없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와 독신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는 자녀가 기혼인지 미혼인지의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 핵가족화의 증거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을 장현섭(1993)도 지적하고 있다(p. 51).

핵가족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공동생활의 해체를 한층 가속시키는 현상은 이혼율의 증가이다. 1972년에 0.37%였던 이혼율은 1975년에 0.48%, 1981년에 0.63%, 1985년에 0.98%, 1990년에 1.05%, 1991년에 1.20%, 1992년에 1.31%로, 그야말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장휘숙, 1995, p. 51). 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공동생활의 해체 현상은 과연 삶의 질 또는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 것인가.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이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족상황과 이혼 또는 재혼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이혼율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의 변화가 남녀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구분히 차츰 흐려진다고 볼 때(장휘숙, 1995), 옛부터 굶은 일을 맡아 오던 여성들의 삶의 질은 향상된 반면 남성들의 심리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해 젊은 부부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을 수 있지만, 노인층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다. 옛날에는 한 집

안의 어른으로서 대우받으며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천대받는 신세로 전락한 노인들의 예를 신문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삶의 질의 판단 지표를 경제적 수준과 같은 비교적 객관적인 데서 찾느냐 아니면 돈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는 만족하는 주관적인 면에서 찾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연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구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인척들의 방문 횟수, 가족 및 혈연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의존도, 및 가족·혈연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주관적 만족도 간 관계 등만을 기본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공동생활 해체의 차원

임희섭(1994)은 공동생활 해체의 차원을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생활 해체 차원의 특징들을 많이 보일수록 그 공동생활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런 특징들을 적게 보일수록 그 공동생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잠정적으로 세워 볼 수도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그 첫번째 단계로서,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의 심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일부만을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연관시켜 보았다.

요컨대, 우리의 공동생활을 삶의 질의 측면에서 돌이켜 볼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표 2. 공동생활 해체의 차원

심리적 차원	문화적 차원	사회적 차원
1. 공동생활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충성	1. 문화적 이질성과 갈등, 도시-농촌 문화의 갈등, 종교적 갈등, 인종적·민족적 갈등, 세대갈등	1. 공식적·비공식적 주민조직에의 낮은 참여도
2. 다른 공동생활 성원에 대한 낮은 동일시		2. 공공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
3. 공동생활 문제에 대한 무관심		3. 이익갈등과 갈등조정 기제의 비효율성

출처: 임희섭(1994), p. 76.

공동생활이 바로 혈연집단, 특히 가족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집단은 혈연으로 연결된 집단이므로 다른 집단과 달리 구성원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도 쉽게 풀기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근래 들어 가족 내지는 혈연공동생활의 의미가 많이 변화해 왔을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 실태가 어떠한지를 사실 그대로 점검해 보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와 삶의 질”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혈연공동체의 현황 조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수적으로 삶의 질의 여러 하위차원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삶의 만족도를 가족 및 친인척 관계 만족도와 함께 측정하여 혈연공동체 생활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관한 결과를 간단히 덧붙였다.

## 방 법

### 피조사자

전국에서 다단계 층화 군집표집법으로 무선표집된 남녀 1,000명(남자 506명, 여자 494명)이 본 설문조사에 응했다. 구체적인 표집 방법은 (1)먼저 성인 남녀 인구비례에 따라 광역 및 지역별로 표본 수를 결정한 다음, (2)각 지역 내에서 광역시의 경우는 구별로 표본 수를 결정하고, 기타 시도지역의 경우는 시·군 별로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 (3)광역시의 경우는 구내에서 통/반을 무선 표집하고, 기타 시·군의 경우는 통/반 또는 리/마을을 무선표집하여 총 100개의 표집지점(sampling spot)을 선정하였다. 끝으로 (4)각 표집지점(즉, 표

표 3. 피조사자의 지역별,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b>지역별 분포</b>			<b>성별 분포</b>		
서울	258	25.8	남자	506	50.6
부산	89	8.9	여자	494	49.4
대구	54	5.4	계	1000	100.0
광주	25	2.5	<b>연령별 분포</b>		
인천	43	4.3	20대	336	33.6
대전	25	2.5	30대	295	29.5
경기	147	14.7	40대	187	18.7
강원	35	3.5	50-60대	182	18.2
충북	32	3.2	계	1,000	100.0
충남	43	4.3	<b>개인소득수준별 분포</b>		
경북	64	6.4	없음	308	30.8
경남	84	8.4	50만원미만	53	5.3
전북	45	4.5	50-150만원	401	40.1
전남	56	5.6	150-250만원	167	16.7
계	1,000	100.0	250만원 이상	54	5.4
			모름, 무응답	17	1.7
			계	1,000	100.0
<b>학력별 분포</b>			<b>성별·직업별 분포</b>		
무학·국중퇴	25	2.5	남성 유직	480	48.0
국졸·중중퇴	70	7.0	남성 무직	26	2.6
중졸·고중퇴	106	10.6	여성 유직	234	23.4
고졸·대중퇴	505	50.5	여성 무직	7	0.7
전문대졸 이상	254	25.4	주부	253	25.3
모름·무응답	40	4.0	계	1,000	100.0
계	1,000	100.0			

집된 통/반 또는 리/마을)에서 10개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내에서 1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된 최종 피조사자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및 직장유무별 분포는 표 3과 같았다.

### 조사방법

모두 일곱 명의 공동연구자들이 각자의 조사영역(본 논문의 첫 저자는 ‘혈연공동생활’ 부분)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작성하여 토론을 거친 후 최종 질문지를 만든 다음,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 질문내용

가족공동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 조사연구에 포함되었던 항목들을 간단히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친척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2.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현재의 가족구조를 알기 위함).
3. 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까운 혈연(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 자매)을 만나는 횟수.
4. 종친회 참가 횟수.
5.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기꺼이 주려고 생각하는 친인척의 범위.
6. 가족관계 및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
7.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및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이에 더하여, 피조사자의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 결혼상태(미혼, 결혼-동거, 별거 또는 이혼을 포함한 기타 결혼상태) 등 개인적인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인들과 앞의 혈연공동생활 관련 변인들 및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결 과

이제 본 조사의 결과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결과 전달의 명료성과 경제성을 위해, 모든 조사결과를 빠짐없이 기술하지 않고 통계검증을 하여 유의하게 나온 결과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특히 남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주목했다. 그 이유는 여러 공동생활들 가운데 특히 남녀 역할분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공동생활이 바로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친척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

친척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남녀별 및 지역크기별로 분석해 본 결과, 남녀 공히 지역크기에 상관없이 명절, 결혼식, 생신 순이었다. 이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좌측의 남녀별

표 4. 친척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남녀별 및 지역크기별 백분율)

	남녀별 백분율		지역크기별 백분율		
	남자(n = 506)	여자(n = 494)	대도시(n = 493)	중소도시(n = 262)	읍·면(n = 245)
명 절	64.0	59.3	56.8	69.1	63.7
결혼식	20.8	21.9	24.7	17.6	18.4
생 신	6.3	10.1	8.7	6.9	8.6
	$\chi^2_{(2)} = 5.44, p = .066$		$\chi^2_{(4)} = 10.36^*$		

주. 가장 비율이 높은 것부터 세 가지만 적었음. \*  $p < .05$ .

백분율에 대한  $\chi^2$  검증 결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chi^2_{(2)} = 5.44, p = .066$ , 남자는 명절을 여자보다 더 중요시하는 반면 여자는 결혼식이나 생신을 비교적 중요시하는 듯한 경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표 4 우측의 지역크기별 빈도에 대한  $\chi^2$  검증 결과는 유의했다,  $\chi^2_{(4)} = 10.36, p < .05$ . 이 결과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명절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반면 결혼식을 중요시하는 비율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표 5의 좌측 남녀별 분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녀 공히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는 아빠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아내 쪽의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남편 쪽의 부모나 형제자매(특히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친가보다 처가 쪽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통대로 처가보다는 친가 위주로, 즉 남성 위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빈도에 대한  $\chi^2$  검증 결과가 유의하여, 남녀간

의 의미있는 분포 차이를 시사했다,  $\chi^2_{(4)} = 37.31, p < .001$ . 표 5의 우측 백분율은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역크기별로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한  $\chi^2$  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읍·면 단위든 관계없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비율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으로 똑같았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현재의 결혼상태를 세분화하여 ①미혼, ②결혼-동거, ③결혼-별거, ④결혼-주말부부, ⑤이혼-독신, ⑥이혼-재혼, ⑦사별-독신, ⑧사별-재혼 상태 별로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혼하여 동거하고 있는 정상적인 집단은 표 5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즉 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동거 비율이 높음), 나머지 ③부터 ⑧까지의 모든 예외적 결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와 함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③결혼-별거 중인 11명 중 8명(72.7%)이, ④결혼-주말부부인 7명 모두(100%), ⑤이혼-독신인 5명 중 4명(80%)이, ⑦사별-독신 19명 중 14명(73.7%)이, 그리고 ⑥이혼-재혼과 ⑧사별-재혼 상태인 각각 1명씩(100%)이 모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물론 ①미혼인 경우는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279명 중 216명(77.5%)이 부모와 함께, 191명(68.5%)이 형제자매와 함께, 그리고 40명(14.3%)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남녀별 및 지역크기별 백분율)

	남녀별 백분율		지역크기별 백분율		
	남자(n = 506)	여자(n = 494)	대도시(n = 493)	중소도시(n = 262)	읍·면(n = 245)
배우자	64.1	71.8	68.0	66.8	69.0
자녀	59.7	68.2	63.7	64.5	63.7
부모	38.2	19.8	32.3	29.8	35.9
형제자매	24.4	18.8	24.7	21.4	20.0
없다	5.5	4.0	5.7	6.1	1.6
	$\chi^2_{(2)} = 37.31^{***}$		n.s.		

주. 비율이 아주 낮은 경우는 제외했음. \*\*\*  $p < .001$ .

표 6.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만나는 횟수의 남녀별 응답비율(%)

	남자(n = 506)		여자(n = 494)	
	부모	장인·장모	부모	시부모
거의 매일	4.3	1.2	2.8	3.0
주 1회	8.7	5.3	8.1	7.5
월 1회	11.1	10.3	15.6	10.5
2달에 1회	5.3	5.9	7.9	7.9
3달에 1회	10.3	9.7	12.3	8.9
연 2회	4.9	14.8	10.7	6.5
연 1회	2.0	4.3	2.4	0.8
거의 없음	1.4	3.0	2.0	2.6
동거·미혼·무응답	52.0	45.5	38.2	52.3
계	100.0	100.0	100.0	100.0 (%)
연평균 횟수 (동거·미혼·무응답 제외)	47.00 <sup>a</sup>	17.27 <sup>b</sup>	28.46 <sup>c</sup>	36.02 <sup>c</sup> (회)

주. 비율이 높은 경우들은 이탤릭체로 적었음. 연평균 횟수 산출시에는 동거·미혼·무응답을 제외한 빈도 자료로 계산하였음. 연평균 횟수의 위첨자가 서로 다른 평균치끼리는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만나는 횟수

어떤 인간관계든 만나는 횟수가 서로 가까운 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거하지 않는 친인척의 경우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조사해 봄으로써 그들과의 친밀도를 간접적으로 알아 보았다.

부모 만나는 횟수의 남녀별 분석: 이 조사의 결과는 상당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즉, 사람마다 제각기 사정이 다를 가능성이 많음), 부모의 경우 대체로 남녀 공히 월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3달에 1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 6의 좌측 참조). 그러나 세번째 많은 응답을 보인 항목에서 남녀차가 나타났다. 즉, 남자 부모의 경우는 월1회, 석달에 한번, 그 다음으로 주1회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위였으나, 여자 부모의 경우는 월1회, 석달에 한번, 그 다음으로는 연2회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위였다. 연2회란 아마도 구경과 추석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여자 쪽의 부모 방문은 아무래도 남자 쪽의 부모 방문에 밀려 뒤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6의 좌측과 우측을 대조하면서 살펴 보면 이런 현상이 잘 드러난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즉, 장인과 장모)를 만나는 횟수를 연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분포가 넓게 퍼져 있어서 개인차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모 만나는 횟수를 좀더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연속변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연평균 횟수로 환산해 보았다. 환산 방법은 모든 선택지를 연간 만나는 횟수로 고쳐 '거의 매일'을 365회, '주1회'를 52회, '월1회'를 12회, '2달에 한 번'을 6회, '3달에 한 번'을 4회, '연2회'를 2회, '연1회'를 1회, 그리고 '거의 없음'을 0회로 간주한 다음 평균을 구했다.<sup>1)</sup> 이렇게 해서 구한 평균치가 표 6의 맨 아랫줄에 나와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여자의 경우는 시부모를 만나는 횟수가 친정부모를 만나는 횟수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유의한

1) 이와 같은 환산방법을 제안해 주신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이종한 교수께 감사드린다.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이 '거의 매일'을 2-3일에 한번 정도로 보아 연 120-180일 정도로 환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이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아주 적어 처음에 365로 계산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처음의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였다.

차이는 아니었던 데 비해, 남자의 경우는 친부모를 만나는 횟수가 장인·장모를 만나는 횟수보다 월등하게 더 많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자기 부모를 만나는 횟수는 여자가 양가 부모를 만나는 횟수보다 유의하게 많은 데 비해 장인·장모를 만나는 횟수는 여자가 양가 부모를 만나는 횟수 보다 유의하게 더 적었다.

형제자매 만나는 횟수의 남녀별 분석: 형제자매를 만나는 횟수도 부모 만나는 횟수와 마찬가지로 환산해 본 결과 표 7과 같은 평균치를 얻었다. 이 표에는 부모 만나는 횟수의 환산점수까지 함께 제시하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여자의 경우는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만나는 횟수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나는 횟수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해 남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본인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횟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은 부모 만나는 횟수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표 7의 상하 평균치를 서로 비교해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남자 쪽의 부모를 만나는 횟수(남자의 경우는 본인의..., 여자의 경우는 배우자의...)가 형제자매를 만나는 횟수보다 많은데, 남녀 공히 여자 쪽의 부모(남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여자의 경우는 본인의...)를 만나는 횟수와 형제자

매를 만나는 횟수는 거의 비슷하게 적음(특히 남자가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도 배우자의 부모는 자주 만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본인의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약간 더 적게(혹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및 형제자매 만나는 횟수의 지역크기별 분석: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만나는 횟수를 지역크기별로 환산한 결과가 표 8에 나와 있다. 표 8에서 눈에 띄는 점은 먼저 지역크기가 작을수록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를 만나는 횟수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표는 남녀의 자료를 합한 것인데, 여전히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본인의 부모를 만나는 횟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의 경우는 형제자매를 만나는 횟수보다 부모를 만나는 횟수가 더 많은데 비해, 대도시에서는 부모보다 형제자매를 만나는 횟수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즉, 대도시 거주자들은 세대가 다른 부모보다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형제자매와 더 가까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종친회 참가 횟수

종친회와 같은 혈연관계 단체에 참가하는 횟수는 남녀 공히 ‘거의 없다’는 사람이 가장 많고, 연

표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나는 연평균 횟수의 남녀별 평균치

	남자		여자	
	본인의 ...	배우자의 ...	본인의 ...	배우자의 ...
부 모	47.00 <sup>a</sup>	17.27 <sup>b</sup>	28.46 <sup>cd</sup>	36.02 <sup>d</sup>
형제자매	41.76 <sup>a</sup>	16.86 <sup>b</sup>	29.13 <sup>cd</sup>	24.89 <sup>bc</sup>

주. 위첨자가 서로 다른 평균치끼리는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표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나는 연평균 횟수의 지역크기별 평균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	
	본인의 ...	배우자의 ...	본인의 ...	배우자의 ...	본인의 ...	배우자의 ...
부 모	26.65 <sup>abcd</sup>	16.82 <sup>a</sup>	46.13 <sup>e</sup>	32.41 <sup>bcde</sup>	51.14 <sup>e</sup>	41.45 <sup>de</sup>
형제자매	37.04 <sup>cd</sup>	19.20 <sup>a</sup>	27.06 <sup>abcd</sup>	22.26 <sup>ab</sup>	40.72 <sup>de</sup>	23.45 <sup>abc</sup>

주. 위첨자가 서로 다른 평균치끼리는 t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1회, 연2회의 순이었다(표 9 참조). 이것은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3-4촌간 정도 이외의 다른 혈연관계 집단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종친회 같은 모임에 거의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연말 망년회 정도 한 번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다. 여기서도 남녀차가 드러나고 있는데, 비록 횡수의 순위에는 남녀차가 없지만 참가빈도 자체의 비율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거의 참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고 연1회나 연2회(또는 그 이상) 참가한다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표 9 참조). 이 표의 빈도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남녀의 종친회 참가 횡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chi^2_{(2)} = 20.89, p < .001$ . 아마도 여자들의 경우는 종친회 같은 큰 범주의 혈연집단보다는 주변의 더 가까운 혈연 친척들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더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기꺼이 주려는 정도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도움을 기꺼이 주려는 정도는 친척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므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 가족이나 친척이 원하는 도움의 종류가 경제적이나 심리적이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주변에서 더 먼 친척일수록 도움을 주려는 정도가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4개의 선택지(①거의 돕지 않는다, ②별로 돕지 않는 편이다, ③어느 정도 돕는 편이다, ④내 일인

것처럼(전적으로 돕는다) 중에서 내 일인 것처럼 전적으로 돕는다고 응답한 가족의 범위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정도였고, 고모(부)나 이모(부), (외)삼촌이나 (외)숙모 및 사촌은 어느 정도 돕는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오촌 이상되면 별로 돕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체로 가장 많았다.

여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응답을 보였으나, 경제적 도움의 경우 남자보다 더 범위가 좁았다. 즉, 남자는 오촌부터 별로 돕지 않겠다고 한 데 비해, 여자는 경제적인 면에 관한 한 사촌부터 별로 돕지 않겠다고 의사를 비쳤다. 그렇지만 정신적·심리적인 도움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사촌까지는 어느 정도 주겠다고 했다. 오촌 이상이 되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도움을 별로 주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남자는 사촌까지, 여자는 삼촌 정도까지를 아주 가까운 인척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쪽 사촌간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개입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적·심리적인 면까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남녀 모두 사촌까지 정도를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가족관계 및 친인척 관계 만족도

남녀별, 지역크기별, 학력별, 및 결혼상태별 분석: 전반적인 가족관계와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7점 척도(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약간 불만족, ④그저 그렇다, ⑤약간 만족, ⑥만족, ⑦매우 만족)로 물었을 때의 남녀별, 지역크기별, 학력별, 및 결혼상태별 응답 평균치들이 표 10에 차례로 나와 있다.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관계 및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기는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상태는 가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관계 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주며 거주지역의 크기는 친인척

표 9. 종친회 참가 횡수의 남녀별 응답비율

	남자(n = 506)	여자(n = 494)
거의 없음	62.6	74.3
연 1 회	16.4	9.1
연 2 회	9.3	5.3
$\chi^2_{(2)} = 20.89^{***}$		

주. 가장 비율이 높은 경우 세가지만 적었음.

\*\*\*  $p < .001$ .

표 10. 지역크기별, 학력별, 및 결혼상태별 가족관계 및 친인척관계 만족도

	사례수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
남녀별	506	5.52	4.99
남자	494	5.42	4.87
여자		n.s.	n.s.
지역크기별	491	5.43	4.84
대도시	261	5.47	4.90
중·소도시	245	5.56	5.13
읍·면 단위		n.s.	$F(2, 991) = 4.62^*$
학력별			
무학·국 중퇴	25	5.80	5.12
국졸·중 중퇴	70	5.04	4.83
중졸·고 중퇴	105	5.37	5.06
고졸·대 중퇴	504	5.50	4.99
전문대졸 이상	252	5.55	4.78
		$F(4, 952) = 3.33^*$	n.s.
결혼상태별			
미혼	278	5.46	4.74
결혼-동거	670	5.51	5.04
그밖의 상태	44	4.86	4.39
		$F(2, 992) = 6.33^{**}$	$F(2, 989) = 10.26^{***}$

주. 만족도 점수는 7점척도 점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더 만족스러움.

\*  $p < .05$ , \*\*  $p < .01$ , \*\*\*  $p < .001$

관계 만족도에만, 그리고 학력은 가족관계 만족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결과들을 하나하나 언급해 보면, 먼저 지역크기가 클수록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낮았다. 변량분석 결과 지역크기의 주효과는 친인척관계 만족도의 경우만 유의했다,  $F(2, 991) = 4.620, p < .05$ . 학력별 평균치의 변량분석 결과는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유의했고,  $F(4, 952) = 3.329, p < .05$ , 친인척관계 만족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력별 분석에서 사례수가 100 이상이 되는 중졸 이상의 결과만을 살펴 볼 때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대체로 높다는 점이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친인척관계보다는 핵가족 안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 평균치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가

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관계 만족도 모두에서 아주 크게 유의했다,  $F(2, 992) = 6.331, p < .01$ ;  $F(2, 989) = 10.261, p < .001$ . 가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관계 모두, 결혼 후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고 미혼인 사람들이 중간 정도였으며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았다.2) 미혼인 사람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혼 후 동거 상태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 결혼 전의 가족관계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결혼 후 동거 상태인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미혼인 경우 다른 친인척관계에 개입될 가능성

2) 결혼상태별 분석에서 “그밖의 상태”란 결혼-동거와 미혼 이외의 모든 상태로써, 결혼-별거중인 11명, 결혼-주말부부인 7명, 이혼-독신인 5명, 사별-독신인 19명, 이혼-재혼인 1명, 그리고 사별-재혼인 1명 모두를 포함한 44명의 자료를 말한다.

표 11. 성별·직업별 친인척관계 만족도

직업	남자(n = 501)	여자(n = 492)	계(n = 994)
경영/관리/자유/전문직	5.25 ( 28)	5.33 ( 9)	5.27 ( 37)
사무관련직	4.96 (102)	4.47 (68)	4.76 (170)
자영업	4.95 (139)	4.78 (65)	4.90 (204)
판매/서비스/영업직	5.00 ( 83)	4.54 (48)	4.83 (131)
농/임/수산업	5.25 ( 20)	5.80 (10)	5.43 ( 30)
생산직,운수장비	4.75 ( 53)	4.13 ( 8)	4.67 ( 61)
학생	5.14 ( 50)	4.79 (24)	5.03 ( 74)
무직	5.08 ( 26)	4.43 ( 7)	4.94 ( 33)
직업 $F(7, 724) = 2.430^*$			
계	4.99 <sup>a</sup> (501)	4.68 <sup>b</sup> (239)	직장남녀 $F(1, 724) = 3.67, p = .056$
(참고) 주부		5.04 <sup>a</sup> (253)	남·직장여성·주부 $F(2, 991) = 6.69^{**}$

주. 만족도는 7점척도 점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 괄호 안의 수치는 사례수.  
 위첨자가 서로 다른 평균치끼리는 단순주효과가 유의했음. \* $p < .05$ , \*\* $p < .01$ .

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와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은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이처럼 낮은 만족도가 별거나 이혼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별거나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본 조사의 연구의 결과에 근거해서 분명히 결론짓기는 어렵다.

성별 및 직업별 친인척관계 만족도: 표 11은 성별 및 직업별로 본 친인척관계 만족도의 평균치이다. 표 11의 성별×직업 이원변량분석 결과(이때, 주부는 모두 여성이므로 평균치를 따로 계산하고 이원변량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도 수준에 근접했고,  $F(1, 724) = 3.668, p = .056$ , 직업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7, 724) = 2.430, p < .05$ . 구체적으로, 어느 직업에 종사하든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높았고(예외: 경영·관리·자유·전문직과 농·임·수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음), 경영·관리·자유·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과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업을 가진 여성

의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주부의 친인척관계 만족도보다 낮았다. 경영·관리·자유·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과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가 아주 적다는 것을 감안한다면(표 11에서 여성의 직업별 사례수 참조),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직장여성이 주부보다 친인척관계에 덜 만족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결혼상태별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표 12는 피조사자들의 결혼상태별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평균치를 나타낸다.3) 이 평균치들의 변량분석 결과가 크게 유의했다,  $F(2, 993) = 6.510, p < .01$ ;  $F(2, 985) = 8.900, p < .001$ .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즉, 주관적 행복감--는 결혼 후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고 미혼인 사람들이 중간정도이며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했거나 경험중인 사람들이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앞서 논의했던 가족관계 및 친인척관계 만족도와

3) 처음에 이 결과를 성별×결혼상태별 이원변량분석해 보았으나, 성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결혼상태의 주효과만 크게 유의하였다. 그래서 남녀별 평균치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결혼상태별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와 평균치만을 제시하였다.

표 12. 결혼상태별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결혼 상태	사례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미 혼	278	4.48	5.64
결혼·동거	674	4.79	5.45
그밖의 상태	44	4.30	5.02
		$F(2, 993) = 6.51^{**}$	$F(2, 985) = 8.90^{***}$

주. 만족도와 기대도는 7점척도 점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만족과 기대가 높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3. 가족·친인척 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

	남자(n = 506)		여자(n = 494)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3032**	.2929**	.3550**	.3403**
미래에 대한 낙관 기대와의 관계	.2076**	.0362	.2075**	.1405*

주. \*  $p < .01$ , \*\*  $p < .001$ .

일치하는 것이다(표 10 참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다른 세가지 만족도 지표(가족관계 만족도, 친척관계 만족도,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달리 미혼인 사람이 가장 높고 결혼 후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라는 점이다. 별거 또는 이혼 경험자들은 역시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도 낮다.

여기서도 앞의 표 10에서와 마찬가지로 별거 또는 이혼 경험과 삶의 만족도 및 미래에 대한 기대 간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다. 즉, 별거 또는 이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낮아졌을 수도 있고, 성격 특성상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비관적인 사람이 그로 인해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 삶의 만족도와 가족·친인척 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끝으로, 남녀 가족관계 및 친인척 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간 상관계수를 구해 본 결과 표 13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표를 보면, 가족관계가 친인척관계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 및 친척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런 결과들은 모두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로서, 먼 친척과의 관계 보다는 가까운 가족간의 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주며,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가족관계와 친인척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남녀 모두 가족관계에 만족할수록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갖는 경향이 있었는데, 미래에 대한 낙관과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관계는 여자 쪽만 약간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친인척 관계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약간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끝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20대의 경우는 동거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r = -.1056, p = .055$ ), 30대 이후의 경우는 대체로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의 경우 동거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r = .1379, p < .05$ )와 미래기대( $r = .1317, p < .05$ )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40대의 경우는 삶의 만족도( $r = .1329, p = .070$ )가, 50-60대의 경우는 가족만족도( $r = .1661, p < .05$ )가 동거가족 수의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성향을 어느 정도 시사함과 동시에, 앞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삶의 만족도 감소 경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로 보인다.<sup>4)</sup>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평소에는 대체로 핵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명절이나 결혼식 또는 생신날 주로 모이며, 가까운 혈연의 경우에는 대개 1-3달에 한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적·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대충 4촌 정도까지였다. 5촌 이상이 되면 별로 의지하거나 도와 주지 않는 편이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이 주종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친척이 동거하는 경우는 아직도 여자쪽 친척보다는 남자쪽 친척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약간 만족'과 '만족' 사이, 친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와 '약간 만족' 사이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만족도가 여자의 만족도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이것이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직결되어,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인척관계에 대한 만족도보다 삶의 만족도와 약간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가족·친인척 관계와 삶의 만족도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역크기별, 학력별, 및 소득수준별 세부분석 결과,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에서는 명절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며 대도시에서는 결혼식을 상

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대도시에서 읍·면 단위로 갈수록 더 증가했다. 부모 및 형제자매 만나는 횟수도 지역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많았으며,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에서는 부모를 형제자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대도시에서는 형제자매를 부모보다 더 자주 만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유의하게 커지는 반면 친인척관계 만족도는(유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넓은 친인척관계보다는 핵가족 안에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경향을 시사했다.

결혼상태별 세부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 후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친인척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미혼인 사람이 중간 정도였는데,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미혼인 사람이 결혼 후 동거하고 있는 사람보다 약간 더 높았다. 어떤 이유에서건 별거나 이혼을 경험했거나 현재 별거 또는 이혼 중인 사람들은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까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만족도가 별거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되었는지, 혹은 별거 또는 이혼 경험이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본 조사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끝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표본 수가 작은 경영·관리·자유·전문직과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그리고 전업주부보다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그밖의 경우는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친인척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20대의 경우는 동거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30대 이후의 경우는 동거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가족만족도 또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요컨대, 공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4) 이와같은 추가분석의 가능성을 제한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및 혈연공동생활에 관한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 중에는 대체로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해가 되는 결과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경향이 있으려니 하고 짐작만 하고 있던 현상들을 전국 표본 조사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수량화하여 검증해 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참 고 문 헌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장현섭(1993).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가족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39집: 한국 근현대가족의 재조명(pp.42-80). 서울. 문학과 지성사.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 가족관계의 발달. 서울: 박영사.

차재호·나은영 역(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함인회(1995). 정보화사회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최종보고서.

Hofstede, G(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s.

## **Korean Family-Clan Living Patterns and Subjective Well-being**

**Eun-Yeong Na and Hai-sook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family-clan living patterns and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a nationwide survey of 1000 samples. Results showed that recent Korean families were mostly composed of two generations (parents and children) and that males' parents were more frequently visited than females' parents. Mal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ves than females, and family life wa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general life satisfaction than clan life. Younger generation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ptimism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but older generation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or life satisfaction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People in small villages tended to meet their parents and siblings more frequently than those in large cities, and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Great national holidays were more respected by people living in small regions than by those living in large cities, and marriage ceremonies were relatively more valued by people in large cities. Highly educated individuals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lives but less with their clan lives, which implies that educated people tended to rely heavily on close family members rather than on remote relatives for their happiness. Those who live together with their spouses after marriage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their family and relatives and their general lives, and those who have not gotten married showed the medium levels of satisfaction. Those who have experienced temporary or relatively permanent separation showed the lowest satisfaction and optimism. Generally, males expresse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relatives than females, and housewives without job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ves than employed women.